아이파크, 광명뉴타운의 중심을 바로잡다
IPARK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031) 443-1957
7월 21일 오픈

문화매일신문

내일을 만드는 기회
기회를 만드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제1459호 2023/9/19/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윤석열 대통령 부부,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산 수산시장 상인 격려 및 엑스포 유치 의지 다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4일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직 대통령이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좁은 시장 통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방문객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환영했다. 환영 인파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응원했다.

대통령은 멍게, 새우, 생선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큰 어려움은 없느냐", "갈수록 나아질 거다"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에 상인들은 "대통령님 파이팅하세요"라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이 시장을 나오자 지역주민 300여 명이 대통령을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대통령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환영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이어서 인근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 의인, 창업가 등 부산 지역 청년들을 비롯하여 기업인,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이 "외국에 다니시면서 영업사원 1호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적어도 여러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적도기니에서 온 온유씨를 포함한 부산 지역 청년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커스텀 슈즈를 선물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신발을 신어보고 "사이즈가 딱 맞네"라며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어서 만찬 참석자 전원과 "엑스포 파이팅", "Busan is Ready"를 외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최광수/기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대한민국 대통령실

경기도, '보트타고 경기바다에서 충남까지' 경기·충남 보트원정대 뱃길 개척

경기 김포아라마리나에서 충남 대천항까지 총 9개 항·포구 방문 및 여건 분석

경기도는 충청남도와 함께 레저보트로 서해바닷길을 개척하는 '경기·충남 보트원정대'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원정대'는 지난해 9월 충청남도와 체결한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충남도 레저보트 바닷길 개척 사업을 말한다. 당시 양 도는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을 공동 육성하고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경기원정대'는 6개월간의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기시흥지부 소속 선장 4명 등 총 10명의 원정대원이 8월 30일 경기 김포 아라마리나를 시작으로 화성 전곡마리나와 제부마리나를 경유해 충남 왜목항, 삼길포항, 모항항, 마검포항, 방포항, 대천항까지 2박 3일간 총 9개 항포구를 방문했다.

'경기원정대'는 향후 방문하는 레저선박들을 위해 항로기록과 항해일지를 꼼꼼히 작성하는 한편, 방문지의 보트 계류 관련 정보와 주변 연계 관광 정보, 먹거리 정보도 함께 조사해 안내 책자에 수록하고, 항해 전 과정을 촬영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적극 활용.홍보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레저 활동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한 항로 개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도서 지역 계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내는 물론 타 지역 레저 선박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레저보트는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여객선과 개인용 세일요트, 모터보트, 슈퍼요트 등을 말하며 추진동력, 규모·크기별로 구분된다.

항해 과정의 기록과 촬영 영상은 경기바다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잇다있다 경기바다)을 통해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북도, '가야고분군'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내 7개 대표적 고분군... 경북'고령 지산동고분군'등재목록 포함

경북도는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9월 17일 오후(사우디아라비아 현지시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

가야고분군은 지난 5월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등재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됐고, 이번에 최종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6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번에 등재 결정된 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가야연맹의 각 권역을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신라, 백제 등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도내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5~6세기 가야 북부지역을 통합하면서 성장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가시성이 뛰어난 구릉지 위에 고분군이 밀집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연맹의 중심세력으로서 대가야의 위상과 함께 가야연맹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분군이다.

특히,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로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라·유교·가야 등 3대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또 경북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16건 가운데 6건을 보유한 전국 최다 지역으로, 세계유산 중심지임을 확고하게 각인시켰다.

이를 계기로 경북도는 가야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기존 신라·유교문화와 연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화관광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경북의 신라·유교·가야 3대문화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쾌거이며, 등재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북은 세계유산의 보고(寶庫)인 만큼 전통 문화자원을 전승·보존하고 미래 먹거리로 적극 활용·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지방시대를 견인하는데 앞장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발의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권광택 도의원 대표 발의안, 상임위 심사 거쳐 본회의 통과해

경북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 발의하여 심의한 건의안의 주문(主文)은 "전국 17개 시도 대비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도민의 필수 의료기본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경북의 의료환경은 지나치게 취약하고 각종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도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며,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과 의료기본권에 근거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가 유사한 내용의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경북 지역대학교 중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유치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돼 지역민의 기대가 한껏 고양됐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도와 발맞추어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의회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북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발로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수산자원연구소, 마산항, 금강공원, 스포원파크, 비콘그라운드 현장방문, 업무 추진사항 직접 확인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안재권 위원장, 서국보 부위원장, 박종율 의원, 박종철 의원, 임말숙 의원, 강주택 의원, 성현달 의원, 이승연 의원)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9월 18일과 9월 20일 이틀에 걸쳐 해당 분야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사능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마산항, 금강공원, 스포원파크, 비콘그라운드 현장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시설을 확인하고 사업장 현황 점검에 나선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첫 방문지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항목(요오드, 세슘)에 따른 주요 분석장비 등을 확인했다.

이어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민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마산항 일대에 설치된 기립식 차수벽 현장을 확인했다.

마산항의 기립식 차수벽은 경남 마산항 인근 해안가를 따라 2018년 준공됐으며, 차수벽을 세우면 최고 5m 높이의 해일까지 막을 수 있는 시설로써, 마산항과 유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 부산 해안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립식 차수벽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레 20일에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인 부산시설공단의 주요 사업장 3개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금강공원에서는 공원의 노후화된 상태와 재정비 계획을 청취 하고, 스포원파크에서는 부산시설공단 산하로 이전된 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비콘그라운드를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은, "해양도시 부산의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 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의회가 주요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구로, 자격상실한 업체와 계약연장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9월 6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일문일답 거부와 장황한 모두발언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육 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때 협약기간 만료시기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했다"며, "업체가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로꽃배달', '대구로카드'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도 당초 협약부터 허용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당초 대구시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인성데이타(주)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인성데이타(주)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일 뿐 아니라 배달앱협약 제21조에서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생활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로페이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의 무리한 확장으로 QR결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대구로페이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정미 의원은 협약위반을 전제로 체결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인지하고 업체에도 고지할 것과 대구로페이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윤근수/기자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시여성회관·스카이워크 설치 대상지 현장방문

여성회관, 여성 역량 발휘를 위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당부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시여성회관(관장 김연수)과 울산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스카이워크 설치 대상지 태화루 용금소 일원을 현장 점검했다.

먼저 여성회관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평생교육과정 △취·창업지원 및 연계 현황 등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위탁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운영실적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해 위원장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감과 더불어 여성의 능력개발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힘써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다 더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스카이워크 설치 대상지인 태화루 용금소 일대를 방문하여 시 관계부서와 용역업체로부터 구조물 설치와 세부 사업설명 등을 청취했다.

환경복지위원들은 "태화루를 더 많이 알리고 국가정원과 연계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명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태화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줄 것"을 주문했다.

황규진/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최옥순 의원 "부천시 산업의 기반인 풀뿌리 산업에 종사해온 숙련기술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기술전수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기반 마련"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장을 선정·육성해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숙련기술을 발전, 계승함으로써 부천시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옥순 의원은 시장의 책무, 명장장려금 지급, 명장 선정자 홍보, 관련 교육과 훈련 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는 등의 명장 예우 및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 지역산업의 발전과 숙련기술 전수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및 기업기술자를 포함한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부천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부천시 산업발전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종사해오신 숙련기술자분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초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50년 동안 발전해온 부천시가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제17회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동참

김기정 의장,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시길"

수원특례시의회은 9월 16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제17회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요 내빈, 수원시민 등이 참석했으며,'새롭게 배우고, 빛나게 나누다'를 주제로 △체험전시 마당 △동아리 공연 △평생학습 보물찾기 등 평생학습 체험·전시·공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더욱 풍요로운 삶과 사회적 기여를 이루시길 기대한다. 또한, 이번 축제가 배움의 가치를 알아가고 함께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이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속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원시민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9월 14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국을 대상으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두 의원은 사회적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매년 170억원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근무인원의 잦은 이·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은 금년 35억원이 발생했으며, 2022년에도 55억원 등의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군의 형편에 따른 관리·감독의 행정력 차이, 지역 맞춤형 사업의 추진 등의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도의 총괄적인 관리·감독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며, 특히, "2023년 일부 지자체의 사업포기에 따라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유영두 의원은 "그동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일자리 창출, 마을 내 집수리, 공구대여, 방범 지원, 어린이·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마을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했다"며, "이제는 수년간 추진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개선과 질적 도약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 개선점을 고민하여 2024년 본 예산 수립 시에는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편성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영두 의원은 9월 20일까지 제1회 경기도 및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안산 불도항 특조금 교부 관련 경기도, 안산시 정책간담회 개최

"안산시 불도항 특조금, 형평성 및 부득이한 상황을 참작하여 이제라도 교부되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안산시 대부해양 유진숙 본부장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경기도 안산 불도항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20년 10월,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 결과에 따라 안산시에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공사비 특조금 22억 원 지원이 결정됐으나,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특조금 교부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태형 의원은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 결과에 따라 안산시와 시흥시가 특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됐으나, 시흥시는 2021년 특조금 신청을 통해 교부가 완료된 반면, 안산시는 아직까지 교부받지 못했다."라며,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산시가 특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을 참작하여 지금이라도 22억 원의 예산이 안산시에 교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은 "불도항은 1988년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해 어업권이 상실된 지역으로 어업인이 불도방조제 인근 공유수면을 생계터전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난개발 배후지 정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라며 "당시 교부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안산시의 신청 의지 여부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 토지매입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불도항 특조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감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부서 의견 조회 시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바쁜 와중에 시간 내어 참석해 준 경기도와 안산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문제 발생 시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민과 안산시민에게 필요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간담회를 마쳤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

세류중학교에서 관내 학교 학부모 및 수원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참석하여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이 14일 세류중학교에서 관내 학교 학부모들과 학교 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세류중학교 교장·행정실장·운영위원장, 신곡초, 세류초, 명당초, 권선초, 세곡초등학교의 학부모 다수와 수원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참석했다.

학부모들은 학습 환경은 물론 화장실 및 급식실 등의 생활 환경 개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물리적·인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편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로 교육청을 중심으로 수원시 및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5일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체육의 웅도로서 그간 건강한 체육정책을 통해 1,400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껏 노력해 왔다"라며 "이 멋진 대회를 통해 경기도가 체육으로 하나되고,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최선을 다해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시와 고양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과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유종상 위원(더민주, 광명3) 등 도의원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및 선수단 등 7천 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부터 17일까지 3일 간 고양시 일원에서 치러진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는 도내 31개 시·군 선수와 임원진 등 2만 여 명이 참가했다.

이 중 선수는 총 1만6,000여 명으로 육상,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등 총 25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였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관…킨텍스가 20년간 운영

김동연 지사, 지난 7월 개장 준비상황 점검하며 정부장관, 경제계인사 대상 협력제안

인도정부가 건설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킨텍스가 운영하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Expo Centre)가 17일 5년여 간의 공사 끝에 인도 수도 뉴델리에 공식 개관했다. 경기도는 고양시 등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해 개관을 축하했다.

30만㎡ 규모의 전시 면적을 갖고 있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는 코엑스의 6.25배, 아시아 5위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중국 제외 아시아 1위)다. 킨텍스가 앞으로 20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킨텍스는 국내 유일 전시주관 상장사(이상네트웍스)와 공동으로 2018년 공개입찰에서 최소 20년간 IICC 운영권을 따냈다.

글로벌 전시산업계 평가 40위권 밖인 국내 전시산업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이자 프랑스, 홍콩 등 세계적 전시장 운영사와의 경쟁에서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었다.

IICC는 인도 정부가 총공사비 약 4조 원을 투입한 핵심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프로젝트로, 나렌드라 모디 현 인도 총리의 역점사업이다. 특히 모디 총리는 2018년 9월 기공식에 참석해 주춧돌을 직접 놓는 등 IICC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개관식에도 참석해 행사를 주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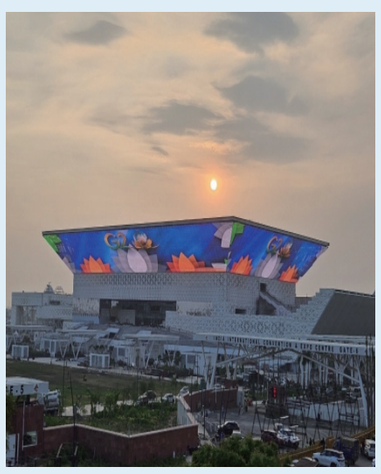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IICC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개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인도전시협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와 인도 상공부장관을 만나 협력을 다짐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IICC는 개관과 동시에 서남아 최대 규모인 플라스틱산업 전시회(7만m²), 인도 마이스 비즈니스 투어리즘 컨벤션(2만5천m²) 등 다수의 국제 대형행사 유치에 성공해 전망을 밝게 했다.

경기도는 인도를 전략적인 수출시장으로 보고, 올해 말 신설되는 뱅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와 IICC를 통해 아세안과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힘을 합쳐 킨텍스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전시컨벤션 운영 노하우가 처음으로 해외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수출까지 이어진 성과"라며 "IICC가 전시컨벤션 산업은 물론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 등 재해보험 현실화와 예산증액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5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등의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경기도 내 농가, 과수농가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농가의 재해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상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을 통해 재해보험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경기도사 편찬사업과 고문서 번역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사업이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문화와 역사의 기록 보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이 이관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및 관련 예산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군체육회와 협의해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체전, 생활체전 또는 장애인체전 등을 유치해 개최하는 시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추가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건설국에 대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감액과 연례적인 예산 이월의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국은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이 책정된 27개소 중 21개소의 정비예산을 감액했고, 특히 21개소 중 10개소는 예산 현액의 70% 이상을 감액했다.

특히, 안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상적인 예산 이월은 토지 보상 등 문제에 대비한 여유 예산 편성 때문이라며, 공공사업 용지보상기금 조례에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기금을 설치해 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타했다.

또한, 안의원은 도시주택실에 대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조금이나마 반영되기를 희망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의 좋은 취지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세수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기금 수익 외에 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른 대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상/기자

"책임감 있는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들 덕분에 수원시에 희망이 보입니다"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 세류1동 어르신들 민원 해결… 어르신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감사편지

"노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베테랑 공무원들이 수원시 혁신민원과에 근무하는 한 수원시에 희망이 보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발신인은 '세류1동 정자 노인 대표 김관태 외 8명'이었다.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이 관리 부서가 애매한 마을 정자를 수리하는 데 발 벗고 나서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말끔하게 해결했다.

지난 7월 19일 세류1동에 사는 한 어르신이 새빛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몇 년 전 세류동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설치한 정자를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아 지붕에 물이 새고,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수를 요청했다.

이명구 팀장을 비롯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4명이 이튿날 현장을 찾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수리를 요청한 어르신들과 면담했다.

정자는 마을 어르신들이 매일 같이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바둑도 두는 '만남의 장소'였다.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보수를 하며 사용하고 있었지만, 비가 오면 지붕에 물이 새고, 나무가 썩어 악취가 나는 등 훼손이 심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어르신들은 "2017년에 세류동 재개발 사업을 할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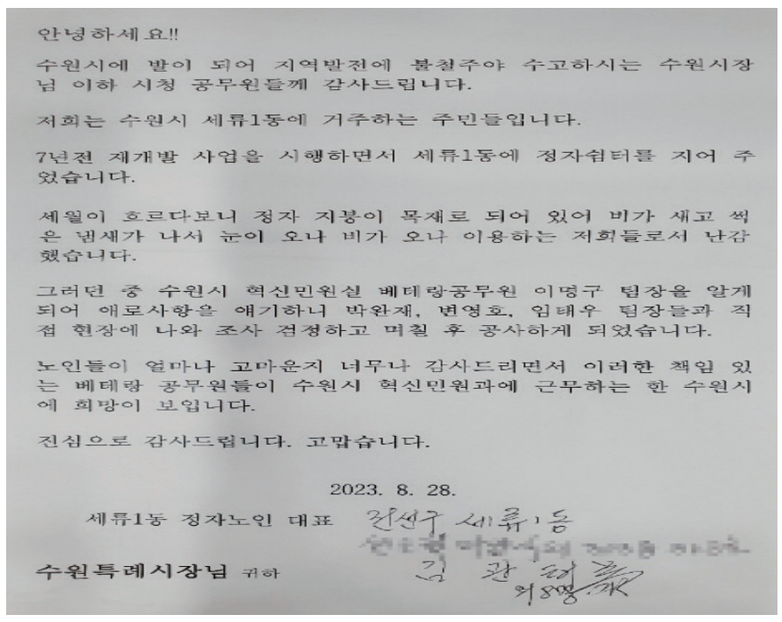
베테랑 공무원들이 LH 남부지역본부를 찾아가 확인했는데, LH에서 설치한 게 아니었다. 당시 공사 관련 서류와 현장 사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니 수원시가 도시기반확충 사업을 할 때 설치한 것이었다. 시설물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내용을 파악한 후 관리 담당 부서(권선구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했고, 지난 8월 30일 보수작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담당 부서가 정자를 관리하게 된다.

어르신들은 이재준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자 지붕에서 비가 새고, 썩은 냄새가 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자를 이용하는 저희로서는 난감했다"며 "그러던 중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을 알게 돼 애로사항을 얘기하니,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며칠 후 공사가 시작되게 해주셨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정자를 이용하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녕하세요!!

수원시에 발이 되어 지역발전에 봉사주야 수고하시는 수원시장님 이하 시청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수원시 세류1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7년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세류1동에 정자쉼터를 지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정자 지붕이 목재로 되어 있어 비가 새고 썩은 냄새가 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용하는 저희들로서 난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원시 혁신민원실 베테랑공무원 이명구 팀장을 알게 되어 애로사항을 얘기하니 박완재, 변영호, 임태우 팀장들과 직접 현장에 나와 조사 검정하고 며칠 후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책임 있는 베테랑 공무원들이 수원시 혁신민원과에 근무하는 한 수원시에 희망이 보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8. 28.

세류1동 정자노인 대표 권선구 세류1동 [illegible] 김 관 태 외8명

수원특례시장님 귀하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 '솔로몬의 선택' 4·5차 행사 참가자 160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미혼남녀 만남 자리인 '솔로몬(SOLOMON)의 선택' 4·5차 행사 참가자 160명을 모집한다.

4차 행사는 오는 10월 28일 제부도에서 '가을 바다 소풍'를 주제로 열리며, 60명(남·여 각 30명)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5차 행사는 오는 11월 19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미리 맞는 성탄절 파티'를 주제로 개최되며, 100명(남·여 각 50명) 참여 규모다.

시는 각 행사일에 연애 코칭, 식사 시간, 돌아가며 1대 1 대화하기, 커플 게임, 본인 어필 타임, 썸 매칭 등을 진행해 인연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행사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1997년~1985년생(27~39세)의 직장인(자영업, 프리랜서 포함) 미혼 남녀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Solo Mon의 선택)를 접속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청 서관 6층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 방식으로 행사 참가자를 선정한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미혼 청춘 남녀의 큰 관심 속에 진행돼 신청 접수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접수는 서로의 인연을 찾는 올해 마지막 신청 절차"라며 "솔로몬의 선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정명근 화성시장,트램으로 동탄신도시 광역교통망 완성

정명근 화성시장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시정브리핑에서 동탄트램으로 동탄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동탄 트램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자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동탄신도시와 수원, 오산 주요거점을 동탄역과 연결함으로써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탄 트램은 지난 6월 전력공급방식으로 슈터캐퍼시티+배터리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유사한 형태의 운영회사인 중국 광저우지하철그룹과, 대만 가오슝시 도시철도 운영사 KRTC를 방문해 운영상의 대비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광저우와 가오슝 운영사례를 보면서 시민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동탄 트램은 내년부터 건설부분 실시설계와 트램차량 제작 설계에 들어간다"며, "동탄 트램은 단순 출퇴근 교통수단의 개념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도시와 어울리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고양시 택시운송 관계자, 4번째 고양똑버스 확대운영 항의방문

10월 6일까지 대형마트 8곳 점검

고양특례시는 지난 9월 15일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조합과 관내 4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등 8명이 버스정책과를 방문하여 고양똑버스(DRT) 확대 운영에 대한 항의 방문을 했다고 말했다.

택시운송 관계자는 고양똑버스(DRT) 도입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고양똑버스(DRT) 도입으로 인해 택시의 이용 승객이 감소하는 등 택시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교통체계 역할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정책과장은 식사동, 고봉동에서 고양똑버스(DRT)를 운행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덕은, 향동지구에도 고양똑버스(DRT) 도입하여 출·퇴근 시 서울 가양역을 연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버스 중앙차로의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마두역~대화역 구간 가변도로 택시 정류장에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택시 관계자는 고양똑버스(DRT) 도입은 지역주민들과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 동안의 지하철, 버스 및 택시운송 역할에 대한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대중교통 정책이라면서 크게 반발했다.

중앙로 가변도로 택시정류장은 현재도 택시정류장 공간이 부족하고 마을버스가 함께 정차할 경우, 택시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승객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택시운송 관계자의 항의 방문은 올해 들어 4번째로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DRT 도입은 지역주민들과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만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로 공존의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전기차 화재 대응 '화재질식소화포' 설치·진화훈련

최대호 시장 "전기차 화재 다양한 대응책 강구…시민 안전하게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안양시는 지난 14일 평촌지하 공영주차장에서 안양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관계자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질식소화포 사용법 등의 화재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해 평촌지하 공영주차장 등 화재에 취약한 지하·노외 공영주차장 9개소에 화재질식소화포 10개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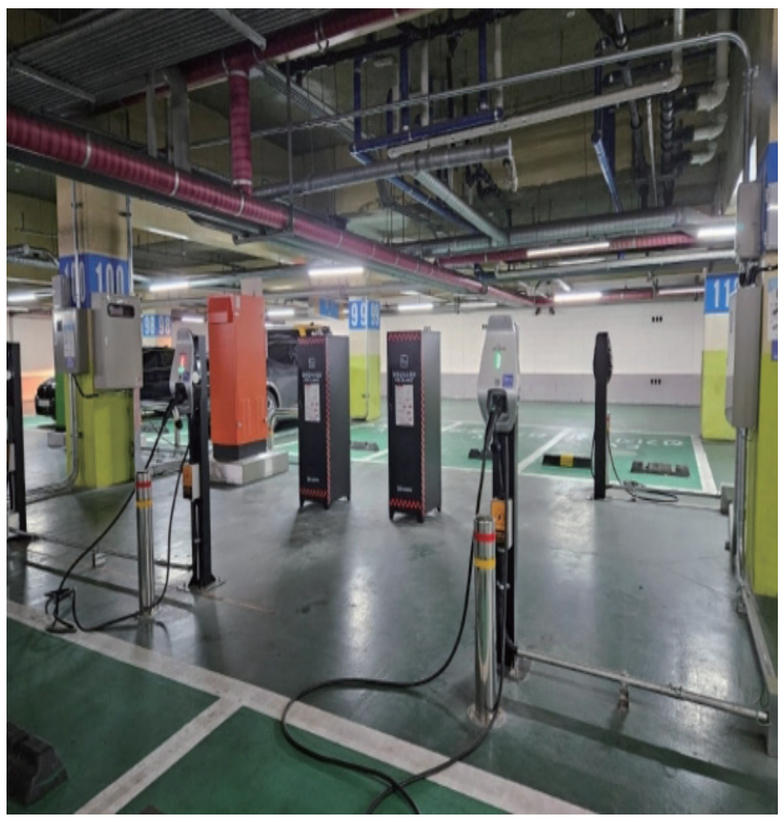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가 최근 3년간(2020~2023년 6월 말) 전국적으로 121건이 발생한 가운데 화재 발생 장소로 주차장이 46건(38%)에 달해 시는 주차장 내 충전시설 주변에 화재질식소화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화재질식소화포는 화재 시 차량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시는 전기자동차 화재 초기 진압과 유독가스 확산 방지 등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대부분 차량 하부에 탑재되어 있고, 높은 방수 등급의 케이스로 보호받고 있어 화재 시 진압 시간이 길고, 소화용수가 많이 필요하는 등 화재 진압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히, 화재 시 배터리가 1000°C 이상까지 발열되며 다른 배터리 셀까지 연쇄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초기 화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양시

신우용/기자

6년 만에 돌아온 '안산 대부포도축제' 성황리에 막 내려

안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펼쳐진 '2023 안산 대부포도축제'가 1만9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마지막으로 개최 후 태풍 및 코로나 펜데믹 등의 여파로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축제는 "대부에 취하자, 즐기자, 빠지자! 대부에서 놀자!!" 라는 슬로건으로 대부동 지역의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대부도 종합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축제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포도를 밟는 포도밟기 체험을 비롯해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 특구인 안산을 즐길 수 있는 '대부에서 떠나는 작은 세계여행 부스' 운영, 포도낚시·포도 스노우볼 만들기 등 다양한 오감만족 체험으로 가족 나들이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해풍을 맞고 자라 풍미가 좋고 싱싱한 대부포도와 품질 좋은 안산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방문객이 직접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대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대부동 탐방관'과 와인체험·목공·도자기·밀짚공예·곤충체험 등 대부도에서 운영 중인 문화체험 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풍성한 먹거리 존을 운영해 대부의 사람, 이야기, 삶 등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져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추억을 선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려 6년만에 개최된 이번 축제를 알차게 준비한 만큼 대부포도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도 농가 소득 증대와 안산의 농특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우상혁 우승은 대한민국과 용인을 빛내 준 큰 경사"

이 시장 "용인의 자랑인 우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 전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시 소속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연맹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대해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를 빛낸 큰 경사"라며 축하와 감사의 뜻을 밝혔다.

우상혁은 1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35를 넘어 세계 정상에 올랐다.

이 시장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은 13차례에 걸친 대회의 성적을 포인트로 합산한 결과 상위 6명만 출전하는 경기로, '왕중왕전'인 셈"이라며 "한국 선수로는 우 선수가 처음으로 파이널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우승까지 하는 대기록을 세운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상혁 선수는 용인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보배가 아닐 수 없다"며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곧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혁은 이날 2m15, 2m20, 2m25, 2m29를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2m33까지 넘은 우상혁은 단독 선두로 나섰지만, 코비엘스키(폴란드)가 2m33을 1차 시기에서 성공시키고 해리슨(미국)도 3차 시기까지의 도전 끝에 2m33을 넘으며 우상혁을 압박했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우상혁이었다.

코비엘스키와 해리슨이 2m35를 3번 시도해서 모두 넘지 못했고, 우상혁은 1위를 확정한 채 2m35의 바를 홀가분하게 뛰어 넘었다.

김범상/기자

인천시, 긴급 틈새 돌봄으로 돌봄 사각 메운다

갑작 또는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재가돌봄·가사, 일상생활 등 지원

인천광역시는 돌봄 사각지대 및 갑작스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즉시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가 돌봄서비스,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돼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 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장기요양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없이도 30일 동안 72시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꼭 이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위기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광명시, '환상 웹툰 교실 시즌2' 성황리에 마무리… 환경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 열어

광명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지난 16일 '환상 웹툰 교실 시즌2' 작품 발표회와 수료식을 개최했다.

'환상 웹툰 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환環)을 생각(상想)하는 환경 콘텐츠 창의 교실'로 '업사이클'이나 '환경'을 주제로 직접 웹툰을 기획·제작하고 SNS와 유튜브에 전시하는 환경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명이 넘는 청소년 참가자들이 지난 9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현직 웹툰 작가와 함께 웹툰 제작에 필요한 실무와 노하우를 배우고 웹툰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며 진로를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유명 웹툰 '묻지마 정신줄'의 신태훈 작가도 특강을 진행해 열띤 강의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작품 발표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재활용 소재와 피규어를 활용해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탄생시키는가 하면, 환경을 주제로 기발한 웹툰 작품을 선보였다. 아울러 웹툰의 스토리를 기획한 이유와 의도를 관객들에게 설명하며, 이 교육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함께 공유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환상 웹툰 교실 시즌2는 미디어와 웹툰이라는 디지털 장르와 업사이클을 접목해 '환경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하며 "청소년 참가자들이 만든 우수한 웹툰 콘텐츠를 많은 시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장뿐만 아니라 SNS와 유튜브 등에서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환경과 업사이클을 주제로 건축, 공연, 패션 등의 다양한 장르와 결합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 수업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광주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재개

광주시는 18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신청 대상은 4·5등급 경유차 및 Tier-1 이하 지게차 및 굴착기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로 접수 하면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1일 환경부가 조기 폐차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지정폐차장 입고일 전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요청해 모두 완납해야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조기 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라며 "매연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부천시청 가상공간에서 만난다…메타버스 문 '활짝'

시청 본관·SNS관·잔디광장·이벤트존 구성…시공간 제약 없는 소통행정 실현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시청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천시 메타버스 홍보 전시관'을 정식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부천시 랜드마크인 부천아트센터 외관과 잔디광장을 실감나게 구현하고 산소정원 등 부천시청만의 독특한 공간도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메타버스에 접속하면 곳곳에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부천시 대표 캐릭터 '부천핸썹'도 만나볼 수 있다.

주요 공간은 ▲부천시청 본관 ▲SNS관 ▲잔디광장 ▲이벤트존으로 꾸며졌다. 특히 부천시청 본관은 부천의 과거, 미래, 현재를 알 수 있도록 역사관, 미래관, 챗봇 민원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 각종 콘텐츠 및 영상, OX 퀴즈를 통해 부천의 어제, 오늘, 미래 등 달라지는 위상과 발자취를 한 번에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천시 메타버스 홍보 전시관을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메타버스 오픈 이벤트도 진행된다.

메타버스 오픈 이벤트는 크게 3가지다. 스탬프 모으기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존'에서 1차로 참여할 수 있고, '역사관'과 '미래관'에서 각각 OX 퀴즈를 풀고 네이버폼에 입력하면 3개 이벤트 모두 응모된다.

이벤트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부천시는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앱 접속 및 이벤트 참여 방법은 부천시 공식블로그에서 '메타버스'를 검색하거나 부천시 페이스북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가상현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간·공간 제약 없이 시정을 홍보해 편의를 높이고 시민들과 한층 더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메타버스에서 부천시의 어제와 미래를 둘러보고, OX 퀴즈를 풀면서 부천시의 매력을 한껏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Fantasia 판타지아 부천

파주 '2023 헤이리 판 페스티벌' 성황리 개막

'2023 헤이리 판 페스티벌'이 16일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성황리에 막을 열었다.

헤이리 판 페스티벌은 헤이리 예술마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축제로, 2005년부터 20년 넘게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축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어 7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아 더욱 성대하게 준비됐다.

'2023 헤이리 판 페스티벌'은 '고고(高古) 헤이리'를 부제로 예스러우며 세상과 친밀하게 고풍스러움을 나타내는 문화예술 축제로, 9월 24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축제에는 다채로운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주된 프로그램은 ▲헤이리 작가 25인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헤이리 작가전' ▲헤이리 내 박물관·갤러리 등 17개 공간에서 자신들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공개하는 '헤이리 콘텐츠 오픈' ▲가족, 연인들이 무료로 헤이리 작가들과 함께 체험하는 '어디서나 메이드 인 헤이리' ▲6인의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헤이리 판 야외 조각전' ▲오케스트라 공연 ▲현소 독주회 ▲풍선 마술 등이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과 탄현면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개막 축하 공연으로 헤이리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진행돼 헤이리 축제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가을밤 예술 향연을 선보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헤이리 판 페스티벌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헤이리 판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소중한 인연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미술, 건축,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과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이룬 공동체 마을로 연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경기도 대표 문화 관광지다.

한영기/기자

전남도 '찾아가는 영화관', 도민 큰 호응

무료 상영뿐 아니라 도민 참여 마을 영화도 제작

'전라남도 찾아가는 영화관'이 도민들에게 큰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라남도 찾아가는 영화관'은 영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방문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 처음 시작됐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이제 영화 상영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을 영화를 제작하거나, 사진 촬영, 마을 달력 제작까지 확대됐다.

특히 마을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제작은 마을 지명과 유래 등 마을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동용 스크린과 빔프로젝트를 활용해 영화관을 만들고, 제작된 마을 영화와 지역민이 선호하는 영화를 상영한다. 단 하루 상영되는 마을 영화는 영화의 주인공이 무대 앞에 나와 소회를 밝히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또한 미리 촬영한 장수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마을 풍경과 마을주민을 배경으로 달력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전시회도 진행한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오는 10월 곡성군 입면과 신안군 자은면을 찾아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장성군 삼서면에서, 8월에는 순천시 월등면과 나주시 다시면에서 진행됐다.

기존 마을 영화와 마을 달력 사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남도영화제 기간 관람객에게 '남도에 사는 사람들 사진전'이라는 주제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원 전남도 문화산업과장은 "찾아가는 영화관은 단순 영화 상영을 넘어 도민들에게 문화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전남도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전통시장 홍보대사 '꼰대희' 위촉

웃장, 아랫장 찾는 사람 더 많아질 듯

순천시는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웃장 국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유명 유튜버'꼰대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통시장 홍보대사는'순천 웃장'이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3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전통시장 홍보 유튜브 제작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홍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웃장날에 맞춰 전통시장 분위기가 나는 웃장 골목골목과 국밥거리를 소재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뿐만아니라 주말에 열리는 아랫장 야시장을 비롯해 아랫장 특유의 독특한 맛집을 찾아 순천 전통시장의 멋과 맛을 더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유튜브'꼰대희'채널을 통해 홍보한다.

꼰대희는 KBS 개그맨 출신 김대희 씨가 출연했던 개그 코너'대화가 필요해'에서 유행시킨 '밥묵자'를 모티브로 한 '먹방'유튜브 채널로 구독자수가 110만에 이르는 유명 유튜브 인플루언서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천 전통시장의 인지도가 더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역전시장 등도 K-관광마켓 10선에 응모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함평군, 제24회 함평모악산 꽃무릇축제 폐막

제24회 함평모악산 꽃무릇 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7일 폐막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한 함평모악산 꽃무릇 축제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3일간 2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대에서는 붉은 꽃무릇의 향연에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함평군이 주최한 만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포토존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했다.

한국의 자연 100경의 꽃무릇 군락지를 둘러볼 수 있는 숲나들이 체험, 꽃무릇 손수건 만들기, 꽃무릇 캘리 부채 만들기, 꽃무릇 인생샷 사진투어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여 방문객을 사로잡았다.

또한 참가자가 모악산 정상을 배경으로 꽃무릇 축제 손수건을 들고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올리면 함평축제관광재단에서 참가자 이름으로 1만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전달식도 가졌다.

특히 군은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총 2천3백여만원, 음식점 판매장은 총 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사고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주신 자원봉사자와 600여명의 공직자, 군민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 내년 꽃무릇 축제때 더 나은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밝혔다.

김영진/기자

'장기기증·헌혈' 나주시 '2023년 생명나눔' 주간 운영

11~17일까지 단체헌혈, 장기기증등록 등 행사

전라남도 나주시는 '장기기증의 날'(9월 9일)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23년 생명나눔' 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장기기증의 날은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속을 되새겨보는 날이다.

숫자 '9'는 뇌사 시 장기를 기증하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기증은 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로 이뤄진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진행하는 생명나눔 주간 행사는 지난 8일 빛가람 호수공원 여울다리에서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초록리본 달기로 시작됐다.

13일엔 시청사에서 생명나눔 스토리 전시회를 열어 장기기증 희망자 51명을 새롭게 등록했다.

또 시청, 공공기관 임직원, 시민 등 203명이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 한국전력공사는 헌혈 참여자를 위한 커피 쿠폰을 후원하며 혈액 수급난 극복에 힘을 보탰다.

오는 22일엔 육군 96보병연대 김천일대대 장병들이 헌혈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생명나눔 주간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하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주민이 꿈꾸는 마을을 현실로!
2023년 노암마을' 꿈꾸는 마을학교'성황리 마무리

남원시는 9월 15일 꿈꾸는 마을학교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노암동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꿈꾸는 마을학교 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꿈꾸는 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주체를 발굴하고 주민주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지원센터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찾아가는 공동체학교를 통해 마을의제 발굴과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보여준 노암동이 2023년 꿈꾸는 마을학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노암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협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암주공공동체 등이 모여 지난 4월'노암동 마을공동체 추진단'을 결성하고 마을축제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마을축제준비, 온전히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이번 노암동 마을공동체 추진단의 준비 과정은 관이나 행정 주도가 아닌 온전히 주민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의 전형(典型)을 보여주었다. 뜻있는 주민이 모여 추진단을 결성하고 추진단장을 선출했으며 다수의 기획회의와 분야별 회의 및 소모임 회의를 가졌다.

또한, 순천시 삼산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사업들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마을축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처음 기획했던 것보다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는 행사가 만들어졌다.

지역자원 발굴도 스스로!

추진단은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축제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암동의 준비되고 잠재력 있는 자원을 찾아 나섰다.

먼저, 지역 자원으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바로 노암동의 비안정미소이다. 기성세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요즘 MZ세대들이 가본 적 없는 곳 중 하나가 정미소일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정미소에서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을축제 중 한 부분인 마을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대간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남원제일고등학교이다.

노암동 추진단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제일고등학교와 학생들의 재능을 지역 자원으로 선정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활동이 학교 안에 국한되지 않고 이번 마을축제에서 그들의 전공을 살려 각종 음료 제조과 옻칠주걱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제일고등학교를 알리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화합의 장, 노암동 마을축제!

노암동 마을축제는 노암동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나눔으로써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5가지 캠페인(마을탐방-비안정미소, 내가 살고싶은 노암동 그리기, 우리동네! 싹 다 말해!, 전래놀이, 우리 동네 푸르게, 푸르게!)과 다양한 먹거리, 체험(옻칠주걱·보자기 에코백·레진키링 만들기)을 진행했으며 애니메이션 상영과 마술쇼를 선보여 어린이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노암동 마을축제의 참여방식은 조금 특별했다.

돈을 내고 음식을 사먹는 것이 아닌, 캠페인에 참여하여 스티커를 받고 그 스티커를 쿠폰으로 교환하여 먹거리와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더욱 많은 이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마을 축제는 다양한 공동체와 기관의 협력이 돋보였다.

노암동의 통장협의회원과 자율방범대원, 노암초등학교의 공간 지원 및 학부모회, 제일고등학교 조리과와 목공예과의 학생과 담당 선생님, 비안정미소와 같이 노암동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남원시사회복지관과 남원시가족센터, 남원엄마들의 사랑방 교육공동체와 전통놀이 전문지도사와 같은 기관 및 공동체들의 참여도 빛을 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개최된 꿈꾸는 마을학교 수료식에서 "꿈꾸는 마을학교 사업 등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지속 발굴되어 저력있는 마을공동체가 지역 곳곳에 생성되어 살기 좋고, 행복한 남원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갑질 예방은 상호 간 소통으로부터!

진도군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4일 금곡서당 훈장이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서상일 전문강사를 초청 반부패청렴 및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진도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200여 명이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근절 등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 척결과 배려문화 확산으로 청렴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청렴교육을 비롯, 반부패청렴 결의대회, 청렴소통 간담회 등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지도 선도마을, 탄소중립 마을로 선정

수선화의 기적 '탄소중립'의 섬!

신안군 지도읍 선도마을이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군은 탄소중립 실천 마을 공동체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및 주민 실천 생활화 확산을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사업은 '지도 선도마을'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대표 마을로 지정하여, 탄소 숲 조성 및 주민 참여하는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 숲 조성 나무심기 △주거 공간 LED 교체 △탄소중립 실천 주민교육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람, 환경, 공간이 조화되는 그린 선도마을을 형성하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고효율 LED 조명 교체로 전기료 등 탄소배출 낮춤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의 주요 관광지인 선도마을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탄소중립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도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 대책 추진

'물가안정'·'민생회복' 에 집중한 4개 분야 16개과제 중점

전북도는 장바구니 부담 더는 풍요로운 명절과 서민·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는 18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간의 긴 연휴기간을 감안,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폭염, 폭우,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과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이지만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을 비롯해 귀성객들의 편의와 각종 재난재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6일간의 긴 명절 연휴 기간에 소비를 촉진하여 도내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수품에 대한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공공요금 인상억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주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함께 살피고,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도 추진한다.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송력 확충 등 교통편의를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도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재해·화재 등 각종 상황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국제유가 상승,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건 하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어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도민들께서 가족과 친지, 이웃 등 소중한 분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찾아가는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 운영

전남 구례군은 9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도안전학당'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방지 대책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 강화 사업이다.

구례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화에 따른 운동 능력 변화와 생활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에서 위촉된 전문 강사 4명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135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전동차 안전, 보행 안전, 안전운전 수칙 등), 생활안전(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등으로 구성됐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성현/기자

완도군, 해양치유 연계 숙박시설 투자 유치 팸투어 실시

대규모 숙박시설 건설로 관광객 1천만 시대 도약

완도군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숙박시설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호텔 투자사와 운영사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진행했다.

군은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을 앞두고 치유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웰니스 관광도시 건설로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대규모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팸투어를 마련했다.

팸투어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롯데호텔, 이랜드파크 등의 운영사와 유진자산운용, 캐피탈랜드 등의 투자 금융사, 에이치피엠파트너스, 오륜산업개발 등 개발사, 건축사, 회계 법인사, 호텔 디자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신지 명사십리, 완도읍 과수연구소, 청산도 등 투자 대상지에 대한 투자 여건을 확인하고 완도군의 투자 환경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봤다.

특히 신우철 군수가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웰니스 해양관광 도시 육성,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현안과 투자 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투자를 적극 제안했다.

팸투어 참가자는 "이번 투어를 통해 완도의 매력과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해양치유산업 등 완도의 장점을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팸투어가 주요 기업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완도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 등을 적극 홍보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군은 앞으로 투자 유력 기업 설명회, 해외 투자 활동 등 다양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 민간 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갈 계획이다.

양영율/기자

2023 목포 청년의 날, 화려한 라인업과 흥미진진한 EDM 축제로!

제 1회 목포청년의 날…청년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

목포시가 제1회 목포청년의 날 행사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대반동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목포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서 주관했다.

청년의 날은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이번 행사가 목포청년을 위한 첫 회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했다. 이로써 청년들과의 소통의 자리는 물론, 청년이 주도해 행사를 치러내 더욱 풍성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날 하루 만큼은 청년들이 공부와 취업, 직장 등에서 생기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기면서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EDM 축제로 기획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EDM 축제로 진행됐으며 청년들의 인기스타 슈퍼비, 소녀세상, 아이씨유 등 화려한 라인업과 2명의 DJ가 2부 순서를 진행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청년활동가들과 청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청년 창업기업에서 개발하고 판매중인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부대행사가 치러졌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목포에서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앞으로도 이색적인 축제가 자주 열려 목포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참여 소감을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청년 문제에 공감할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각양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목포 청년을 위한 시 정책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화순군, 추억의 '주말의 명화' 오케스트라 공연 성료

(MBC, 1969년~2010년) 주말의 명화 프로그램 명화 OST 오케스트라 공연

화순군은 지난 9월 15일 18시 30분에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에서 광주윈드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추억의 '주말의 명화' 명화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명화음악회는 지역의 문화 활력을 높이기 위해 화순군에서 신청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MBC에서 1969년~2010년 방영했던 '주말의 명화'의 영화 명장면을 무대 뒤 스크린으로 보면서 명화 OST를 오케스트라로 감상하는 음악회이다.

이번 음악회는 남녀노소, 꿈이 있는 청소년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나온 요양원 식구들까지 1,000여 명이 이번 공연을 찾았다.

뛰노는 아이들부터 돗자리를 깔고 앉아 즐기는 연인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로 가을 저녁 정취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공연이 완성됐다.

공연은 '주말의 명화' 주제곡으로 시작해 미녀와 야수, 아바타, 쥬라기공원, 슈퍼맨, 쉰들러 리스트, 스타워즈, 맘마미아에 수록된 곡들로 구성이 됐으며,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합창단의 노래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 감동 있는 무대가 연출됐다.

공연 후에는 아이들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분장한 배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져 즐거운 추억거리도 가져갔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해 기획한 공연인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11월에는 보다 더 깊이 있는 공연을 위해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다른 곡들로 공연을 꾸밀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강진군 산업단지 환경정비 풀베기 작업

강진산단·칠량농공단지 환경정비

강진군이 추석을 앞두고 입주기업들과 강진산업단지, 칠량농공단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강진산업단지 구간 65만5,267m²에 걸쳐 공원 및 보도블럭 틈새로 우거진 잡초 등 평소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풀베기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위해 쓰레기 수거 및 배수로 정비, 산업단지 사면 보수 등 통해 입주기업들과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에게 깨끗한 산업단지 경관을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칠량농공단지 도로변, 경계부지, 소공원, 농특산물 판매장 주변 풀베기와 환경정비를 실시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고향의 정겨움을 느끼게 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산업단지와 칠량농공단지 주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특산품 사가기 운동을 전개해 강진 고향사랑이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경북도 안동소주, 라오스 진출로 K-경북푸드 세계화'박차

경북도, 라오스와 농업분야 교류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농식품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 활동 일환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지난 15일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해 라오스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메콩라오 수출입유한공사 관계자와 농식품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교류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라오스 농림부,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라오스와 농업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농식품 분야 교류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또 메콩라오 수출입공사 대표(락사미 베사퐁, Latsamy Vetsaphong)를 만나 안동소주 동남아시아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동소주 라오스 공장 건립, 시설·장비 구축 등 기술 지원, 동남아시아 진출방안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박찬관 명인안동소주 대표는 "안동소주는 양반들이 즐겨 마신 고급술로 깊은 맛과 향을 간직한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술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동소주 제조 노하우와 품질을 세계로 확산시키고 안동소주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라오스는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5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 2021년 중국 윈난성 쿤밍과 라오스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인접 국가와 교역이 더욱 용이해졌다.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직항노선 개설 후 라오스 여행자 수가 20만 명 이상('19. 203,191명, 라오스 통계연감)을 기록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아세안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라오스와의 협력은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데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활동은 안동소주 세계화 및 K-경북푸드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즐거운 추석, 가족과 함께 대구어린이세상으로 놀러오세요!

추석 당일인 29일 제외 추석 연휴 정상 운영

지난 6월 27일 재개관한 '대구어린이세상'이 추석 당일인 29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

대구어린이세상은 개관 후 현재까지 3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체험 놀이 공간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을 위해 이용이 제한됐던 꿈누리관 1층의 섬유놀이터와 야외놀이터가 최근 모두 개방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석을 맞아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웠던 토종 씨앗을 비롯해 과일의 씨앗까지 살펴보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가을이 놀라워'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괘적하고 여유로운 관람을 위해 시간대별 입장 정원에 따른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장료 및 이벤트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어린이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시어 캐릭터 '도리와 보리'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 추진

9.18.~10.20. 부산시 소재 수산업 연관 분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

부산시는 부산시어(市魚) 고등어 캐릭터인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리와 보리'는 부산 시어인 고등어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시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탄생했다. 제20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에서 첫선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은 부산시 소재 수산업 연관 분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부산시어 캐릭터인'도리와 보리'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부산지역 수산업 연관 기업·소상공인이 제품을 제작·판매할 때 '도리와 보리'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부산시어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이러한 시어 홍보 효과로 수산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신청은 오늘(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가능하다. 부산시에 본사를 둔 수산업 연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용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시 수산진흥과로 제출하면 되며, 부산시 내부 검토를 거쳐 제출서류에 대한 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하면 된다.

부산시 누리집 내 통합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이용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2년간'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 약관 위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료일 60일 전까지 최초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시는 이번 사업은 부산의 시어 고등어를 알리고 수산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제품 이외에는 저작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개방이 부산 시어(市魚)인 고등어를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수산업 관련 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부산의 수산업 연관 중소기업·소상공인과'도리와 보리'가 함께 발전해갈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안동시 낙동강 음악분수, 다채로운 음악으로 공연 시간 늘려

안동시가 낙동강 음악분수의 운영시간과 운영 음원을 9월 18일부터 변경한다.

낙동강 음악분수는 드넓게 트인 낙동강 둔치와 어우러진 바닥형 분수시설로 강변 나들이객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쏟아져 나오는 20m 높이의 물기둥과 다채로운 조명으로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방문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음원과 긴 감상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음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변경을 진행 중이다. 18일부터는 변경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낙동강 음악분수의 운영시간은 현재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2시, 8시이다. 기존 1회당 25분 운영됐지만, 시간을 늘려 50분씩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음원도 신규 음원 12곡에 기존 음원을 섞어 총 54곡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 더욱 화려한 분수 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채로운 음원과 길어진 운영시간으로 방문객의 다양한 취향 충족에 기여하겠다"라며 "낙동강 음악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청송군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한다.

군은 맥락 없는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先 계도, 後 단속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의 현장단속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특히 청송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

되어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저출산 위기 극복한다… 2023 육아포럼 개최

1부는 V.O.S의 박지헌이 출연해 '너에게 주고 싶은 세가지' 등을 주제로 강연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빠가 함께 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가 경주에서 펼쳐진다.

보건복지부와 경주시는 오는 21일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2023 육아포럼 '아빠가 된다' in 경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형 포럼인 이번 행사는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과 육아의 기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2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다. 특히 100년 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곳을 제외한 221곳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놓일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나온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주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 및 육아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출산돌봄 친화도시 경주'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토크콘서트 1부에서는 그룹 V.O.S의 박지헌이 출연해 '뷰티플 라이프'와 '너에게 주고 싶은 세가지'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박지헌은 아들, 아들, 아들, 딸, 딸, 딸 순의 6남매를 둔 가장으로서 출산과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솔하게 청중에게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 최민준 소장의 강연이 이어진다.

최민준 소장은 작가이자 유아 미술심리치료가로 현재 다양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아이들의 이상 행동에 대한 치료와 조언을 맡고 있다.

특히 국내1호 '남아미술교육전문가'로 남자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교정하는데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행사에 앞서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은 시민들을 상대로 경주시의 다양한 출산 보육 정책을 소개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를 소개한다.

주낙영 시장은 "저 출산 상황 속에서 다채로운 양육지원 정책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와 양육자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영양군,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 이하연 홍보대사 위촉

영양군은 18일 제15회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에서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 이하연 전통식품명인을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하연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은 '해물 섞박지'김치로 전통식품명인 58호에 지정되어 김치와 한식요리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국·일본 등 해외는 물론이고 유튜브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위촉식은 제15회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 개막 전 '김치명인과 고추 이야기'란 코너 촬영 이후 개최됐으며, 이하연 명인은 앞으로 4년간 영양군 지역특산물 및 축제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이하연 명인은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고추의 고장,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김치협회회장으로서 의미가 더 깊다."라며 앞으로"지역 축제·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군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라 고 소감을 밝혔다.

오도창 군수는 위촉식에서 "이하연 명인은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으로 김치의 주 양념재료인 영양고추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적임자로 생각되어 모시게 됐다."라며 "앞으로 영양군과 협업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따끔 한 번'으로 독감 무료 예방하세요!

9월 20일 어린이부터 임신부, 어르신 순으로 순차적 시작

경북도는 독감 유행을 대비해 9월 20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9월 20일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시작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6일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도내 어린이 및 임신부 23만 명과 어르신 66만 명이며, 24개 보건소 및 지정된 위탁의료기관 1,034개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할 수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 인원이 제한되니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임신부의 경우에는 산모수첩 등)이 필요하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독감은 통상적으로 가을·겨울철 환자가 급증했다가 여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올해는 유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평해읍, 삼산봉 등산로 정비

울진군 평해읍(읍장 권재목)은 가을철을 맞아 삼산봉 등산로 이용객들을 위해 등산로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삼산봉은 평해읍에 있는 세 개의 봉우리 중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평해읍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다니는 등산로이다. 정비 대상은 평해1리에서 삼산봉으로 올라가는 코스 2km와 평해3리에서 삼산봉으로 올라가는 코스 1km로 총 3km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등산로 진입로 제초 작업 및 넝쿨류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등산객들의 이용과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권재목 평해읍장은"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봉화군, 맛쉬룸 버섯특화메뉴 홍보 시식회 개최

봉화군은 오는 22일 제27회 봉화송이 한약우축제장 일원에서 '봉화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특화메뉴 개발 및 공공배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맛쉬룸 버섯특화메뉴 시식회를 개최한다.

맛쉬룸은 맛+이룸, 맛+버섯(mushroom)에서 나온 '버섯의 맛을 이룬다'는 뜻을 가진 봉화군 버섯특화메뉴 공동 브랜드로, 네이밍 공모 당선작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번 시식회에서는 특화메뉴로 개발한 메뉴 11종 가운데 메인 메뉴인 '표고버섯떡갈비'와 사이드 메뉴인 '버섯두부샐러드' 2종을 선정해 약 300인분을 선보인다.

특화메뉴와 함께 홍보 전단지도 배포해 맛쉬룸 특화메뉴 소개와 개발된 메뉴를 판매할 예정인 식당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맛쉬룸 특화메뉴 시식회와 더불어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식에 참여하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맛쉬룸_버섯특화메뉴시식'을 사진과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맛쉬룸 특화메뉴 홍보시식회가 새롭게 개발된 요리를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맛쉬룸 특화메뉴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활력 장보기 행사

공무원, 관계기관 등 참여해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앞장

영덕군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통시장 활력 장보기 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 등 소비자의 구매 형태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이에 해당 기간 군청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등 1,050여 명이 참여해 관내 전통시장과 오일장에서 영덕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장보기를 하게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많은 군민께서 넉넉한 인심과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장보기 행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어 모든 군민께서 풍요와 나눔의 미덕이 꽃피는 추석이 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추석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지류형, 충전식 카드형의 구매 한도를 각각 130만 원, 180만 원 상향해 각각 5%, 10% 할인하고, 영덕사랑상품권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류형 10% 할인, 카드형 10% 상시 할인한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교육 실시

의성군은 14일 의성로컬푸드직매장 교육장에서 출하농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출하농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직매장 운영현황 분석 및 출하 시 유의사항 안내, 의성로컬푸드 활성화와 대도시 관계시장 확대 방안토의, 동절기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를 독려했다.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꾸러미 등 판매 행사 진행 중이고 사과, 배를 비롯한 샤인머스캣, 멜론 등 출하 전 농가교육과 잔류농사 검사 등을 마친 안심먹거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한편,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직매장 마당에서 추석맞이 야외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선물세트 및 제수용 농산물, 신선채소, 가공품 등 판매하고 구매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와 기간 중 구매 영수증을 함께 의성로컬푸드직매장 네이버밴드에 가입 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의 소비자에게 2만원 상당 농산물꾸러미를 증정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냉해, 폭우 등 재해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추석을 맞이해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탈춤, 예천청단놀음을 아시나요?

K-museums 예천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 "예천 청단 봤니껴" 개막

예천군에서는 예천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이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예천박물관에서 ≪예천 청단 봤니껴≫ 공동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예천청단놀음'을 주제로 2022년 청단놀음을 포함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기획됐으며,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예천청단놀음의 내용과 변화상을 소개하고 탈춤의 전통과 미래를 이어온 사람들을 재조명한다.

예천청단놀음은 수백 년 전부터 예천읍에서 고을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향리들의 주도로 연행되면서 명맥을 이어 온 묵언(默言)의 탈춤이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되며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청단놀음 주제영상은 국악과 전자음악을 결합한 현대적 영상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1부에서는 청단놀음에 등장하는 탈과 소품, 복식을 선보이며 2부는 청단놀음의 재현과 변화상을 시기별로 나눈 아카이브형 전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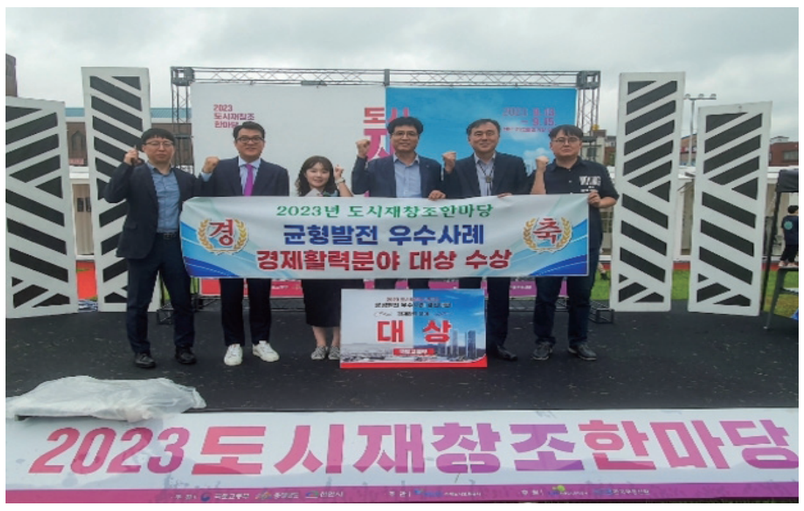
김학동 군수는 "≪예천 청단 봤니껴≫ 공동기획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청단놀음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청단놀음의 계승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단놀음은 1936년 경찰서 낙성식 때 한천에서 연행된 공연을 마지막으로 단절됐으나 1976년 보성초등학교 강원희 교사의 노력으로 다시 그 모습을 찾았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도시재창조한마당 균형발전 우수사례 '대상'

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생력 있는 사업모델 구축 성과 인정받아



영주시 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5일 '2023년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제활력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도시재창조한마당'은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시 오룡경기장 일대에서 열렸다.

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도 특화전략과 자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경제활력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활발한 민간의 참여와 협업으로 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향상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를 선정한다.

영주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남선센터)을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주민 참여형으로 조성한 남선센터는 2017년부터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과 사회적경제교육 등을 이수했고 지난 3월 정식 개관 및 마을기업으로 인가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개관 후 매월 매출이 상승하며 이 기간 총 8257명이 방문하는 등의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는 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청년과 마을주민이 함께 일하고 마을기업에서 운영수익을 통해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연계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자생력 있는 거점시설 모델을 만든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남선센터는 지난해 도시재창조한마당에서도 집수리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쇠퇴문제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활기찬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며 주민들이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문경시립도서관 가족회원 경북 다독가족 대상(大賞)에 선정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이 9월 16일 개최한 '2023 경BOOK 페스티벌'에서 문경시립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인 장선우 가족이 다독가족 대상에 선정되어 도지사상패를 수여했다.

다독가족상은 도내 도서관의 2023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대출 권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장선우 가족은 문경시립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독서의 달 다독자로 선정되어 1년간 1인당 10권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총 1,600여 권의 도서를 대출했다.

'2023 경BOOK 페스티벌'은 경북도민들과 지역 공공도서관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페스티벌로, 책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체험 부스, 문화공연 및 북놀이터 등이 열렸다.

문경문화예술회관장은 "처음 개최된 경BOOK 페스티벌에서 시상된 다독가족 대상을 우리 문경시민이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더 많은 시민이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길어진 추석 연휴만큼 더 신나는 경주엑스포!

경주엑스포대공원, 한가위 한마당 행사 및 입장료 할인·경품 이벤트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엑스포대공원은 10월 2일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 쉬게 되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추석맞이 특별이벤트인 '한가위 우리놀이 한마당 행사'로 관람객들에게 전통놀이와 공연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가족 단위 관람으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사는 추석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원 내 곡수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체험마당에서 다듬이놀이, 널뛰기, 말뚝이 떡 먹이기, 활쏘기, 떡메치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공연마당에서는 마임, 트로트, 풍선아트, 브라스 밴드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연계해 우리 전통놀이(깃털제기, 산가지, 실뜨기, 비사치기 등)와 주령구 던지기, 골든벨 퀴즈 등을 통해 경품(우리놀이 체험세트, 인성교육꾸러미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인피니티 플라잉(INFINITY FLYING)'공연, 지구에 불시착한 네온 외계인을 쫓는 체험형 야외이벤트인 '루미나 네온 카니발'도 추석 연휴 기간 휴장 없이 진행된다.

추석 당일 저녁에는 국악 창작극 '오줌싸개 보희의 꿈' 마지막 공연도 펼쳐져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은 추석 연휴 동안 매회 관람객 10명에게 코오롱호텔 숙박권을 비롯해 애슐리 식사권, 경주월드 이용권, 뽀로로 아쿠아 빌리지 이용권 등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해 추석의 넉넉함을 전한다.

한편, 공원 한가위 입장료 할인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며 한복 착용자, 3대 가족, 달(Moon) 관련 아이템 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주엑스포대공원 및 루미나 네온 카니발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아울러 지역의 취약·소외계층을 초청해 공연 및 체험행사의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웃의 따뜻한 정(精)을 나눌 예정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설점검과 방역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준비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동래구, '제5기 장영실 창의과학 아카데미' 운영

초등생 30명, 천문·우주캠프 등 4차례 참여

동래구는 지난 12일 동래구청소년수련관에서'제5기 장영실 창의과학 아카데미' 입학식을 개최했다.

'제5기 장영실 창의과학 아카데미'는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천문·우주캠프 △4차 신산업 캠프 △천문·과학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입학 첫날인 12일과 13일 1박 2일 동안 개최된 천문·우주 캠프는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열린'천문·우주 캠프'는 천체관측, 천체투영관 탐방 등 다양한 체험과 실습 위주로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심화 과정주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고, 숙박형 캠프로 진행되어 여름 방학의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었다.

'장영실 4차 신산업 캠프'와 '천문·과학시설 탐방 캠프'는 9월 2일~ 10월 7일 4회에 걸쳐 VR 컴퓨터그래픽 제작 체험,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 우주아리랑 천문대 탐방 등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참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어, 동래구를 더욱 빛낼 미래 인재로 거듭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부산시, '2023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행사 개최

9.22.~9.23. 양일간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개최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

부산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3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및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유관기관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과 ▲체험관 ▲상담관 ▲정보관 ▲교육관 ▲문화관 등 5개의 주제관 운영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은 오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유공자 표창, 격려사·축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관에서는 스트레스, 불면증 검사, 가족 사랑 메시지 전하기, 정신건강 편견해소 오엑스(OX)퀴즈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유용한 정신건강 정보 전시, 작가 초청 공감 북토크, 마음사연툰, 마음명상·요가 등 치유(힐링)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마음안심버스를 통한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사전접수 또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행사가 마음건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청송정원 꽃길 음악회'개최

청송군은 9월 15일 18:00부터 파천면 신기리 일원에 조성된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청송정원 꽃길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기 트로트 가수인 장민호를 비롯하여 전유진, 윤태화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이번 음악회는 전국 최대 규모(약 4만 2천 평)를 자랑하는 청송정원의 만개한 백일홍을 무대 삼아 개최된다.

음악회가 열리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군민들과 지역 단체가 협심하여 조성한 형형색색의 대규모 백일홍 단지로, 포토존과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부족하던 주차 공간도 확충된 만큼 방문객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관람객들의 부담 없는 방문을 위해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방문하시어 백일홍 화원의 환상적인 풍광과 음악에 취해보는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약령몰, 추석맞이 한방제품 최대 54% 할인

무료배송 및 할인쿠폰 등 추가 혜택 풍성

대구광역시는 추석 명절과 동행축제를 맞아 '한방제품 특별할인 행사'를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판매장인 메디시티대구 전시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인 대구약령몰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최대 54%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방제품 특화몰인 메디시티대구 전시판매장은 365년 전통의 대구약령시 내에 위치(대구시 중구 남성로 25, 1층)하고 있으며, 약령시 및 대구지역에서 100% 국내산 한방재료를 사용해 생산되는 우수 한방제품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 추석맞이 할인행사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경옥고, 홍삼은 물론 피로회복을 위한 쌍화차, 자연유래 천연 추출물로 만든 한방화장품 등 58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제품을 무료로 배송한다.

오프라인 판매장 구매 시에는 기존회원에게 5% 추가할인 쿠폰 및 선물포장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포인트 2배 적립혜택과 더불어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머그컵이 증정된다.

대구약령몰에서는 한방식품 대상 주말 10% 할인쿠폰과 회원가입 시 신규회원에게 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한방제품 구매문의는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권건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장은 "이번 추석맞이 특별할인 행사를 통해 대구약령시의 우수 한방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추석 선물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대구약령시 홍보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영양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 최종 선정

국비 39억여 원 확보

영양군은 15일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양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39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영양군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과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영양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에는 공영(지하)주차장 및 생태공원, 맞이방 등을 조성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향후 학교복합시설 건립 시, 공영(지하)주차장 130여 면을 확보하게 되어 공공기관과 주택이 밀집된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난을 해소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학 및 보행로를 확보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운동장 생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설치로 건강증진 및 창의적인 놀이 활동 지원, 맞이방(북카페, 통학버스 대기실, 마을 소통방)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의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민 숙원 해소와 지역 주민과 어우러지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일상이 행복이 되는 낭만문화도시로 거듭난다

구미시는 '일상이 행복이 되는 낭만문화도시 구미'를 구현하고 매력 넘치는 문화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영상미디어센터가 10월 개관할 예정이며, 구미만의 특색 있는 '제2회 구미 푸드 페스티벌', '2023 구미라면 축제'를 개최한다.

올봄 벚꽃 개화기간에 맞춰 설치한 금오천 야간 경관 조명은 달빛 아래 흐드러진 벚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금오천 옹벽의 실루엣과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빨강, 파랑, 보라 등 형형색색으로 변화해 구미의 대표적인 산책 코스로 발돋움하고 있다.

금리단길은 지난 7월 구미역후 지하주차장 개방 이후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곳곳에서 이뤄지는 버스킹 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해 금리단길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식음료 및 의류, 생활인테리어 소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 다양한 품목들로 가득차 금리단길을 찾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올 3월 준공한 구미 영상미디어센터는 10월 6일 개관한다. 뉴미디어(유튜브, SNS, OTT)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영상미디어센터는 1인 미디어실, 라디오스튜디오, 상영관, 편집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개관 후 미디어 교육, 시설 대관, 장비 대여, 영화 상영 등 시민들에게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적 참여와 소통,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오시장 3층 상가를 임대해 구미청년상상마루를 조성 중이다.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입주 작가 12명(관외자 포함, 구미시 거주 조건)을 모집 중이며, 1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간 입주하게 된다. 상권 침체로 슬럼화를 겪고 있는 금오시장 일대는 조만간 문화적 유흥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2회를 맞이하는 구미푸드 페스티벌은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송정복개천 주차장에서 열린다. 박정희 대통령 테마밥상 및 한식대가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70여 개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먹거리 존에서는 20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메뉴로 시민들의 입맛을 자극할 예정이다. 또한, 송정 맛울림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MZ세대를 겨냥해 개발 중인 구미 쌀을 활용한 수제맥주를 선보이고, 구미에서 생산한 우리밀빵 제품도 소개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구미 대표 먹거리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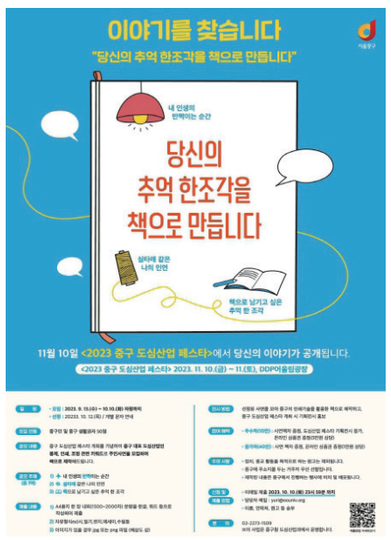
서울 중구의 인쇄 기술, 주민의 이야기를 담다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 열리는 '중구 도심산업 페스타'사전 이벤트를 열어 주민의'얼굴과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고 전시한다.

중구는 신당동, 충무로, 을지로 일대에 몰려있는 봉제, 인쇄, 조명 등 대표 도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심 산업 관련 축제를 열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산업 종사자들이 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오는 11월 10일 (금)부터 이틀간 DDP 어울림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구는 도심산업 페스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구민 또는 중구 직장인을 대상으로'추억 한 조각을 책으로 만듭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자신의 사연을 시, 일기, 편지, 에세이 등 자유 형식으로 써서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그중 50명의 이야기를 뽑아 책자로 엮고 중구 도심 산업 페스타에 전시할 예정이다. 우수작을 제출한 10인에게는 우리은행에서 후원하는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나머지 40인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증정한다.

더불어 구는 첨단 인쇄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얼굴을 '힙'한 초상화로 그려주는'중구민의 초상'행사도 마련한다. '나(가족)의 가장 빛나는 순간', 또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30자 이내의 글에 담아 사진



과 함께 오는 9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30명의 중구민 '얼굴'이 전문 디자이너와 최신 인쇄 기술을 거쳐 일러스트 초상화 포스터로 탄생할 예정이다. 초상화 포스터 30점은 중구 도심산업 페스타 기획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의 도심산업 인프라는 첨단 기술과 접목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중구는 도심산업과 중구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도심 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교육 운영

송편 만들기 위한 꾸러미 지급, 비대면 수업 영상 제공

금천구는 박미보건지소에서 추석을 맞아 송편 만들기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선착순)이며, 금천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9월 18일 9시부터 박미보건지소 네이버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4시부터 박미보건지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참여자는 ▲ 9. 26. 14시 ▲ 9. 26. 15시 ▲ 9. 27. 14시 ▲ 9. 27. 15시 중 원하는 시간에 박미보건지소(시흥3동 소재)에 방문하면 된다. 추석 명절의 유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이론교육을 받으면 송편 만들기 꾸러미를 가져갈 수 있다.

금천구는 참여자에게 서울시 식생활 전문 강사가 전통 방식으로 송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가족과 함께 송편 만들기 체험을 하고, 박미보건지소에 온라인으로 활동사진과 만족도 설문지를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추석에 가족과 함께 송편을 만들면서 명절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영등포구, 주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자 예산! '희망·행복 구민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펼치고자 '소통' 나서 …내년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

영등포구가 다양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희망·행복 구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내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좋은 정책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만큼, 주민과 함께 민선8기 청사진을 그려 나가겠다는 의지다.

1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구는 10월까지 문화·예술, 복지, 체육 등 각계 분야의 단체뿐만 아니라 학부모, 소상공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주민들을 만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구정 운영 방향 등 구의 주인으로서 구에 바라는 내용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생활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동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 동은 주민행복과 생활자치가 구현되는 최일선인 만큼 다양한 민생현장의 목소리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소통이 만사형통'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각계각층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것이 최구청장의 철학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왔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최 구청장의 '소통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구청장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모든 경로당 170개소를 찾아 어르신과 소통하는 '어르신과의 따뜻한 동행'을 추진했다. 최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난방비와 중식.청소 도우미 지원, 노후 시설 개.보수,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로당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구는 주민들과 교감하며 나눈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 및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이자 기본이다"라며 "희망·행복 미래도시 영등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 '소통 행정'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성북구, '성북 청년의 날 축제 : 일단 출발해, 우리가 있을게' 성료

대학 동아리 공연, K-뷰티 체험, 청년 창업가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즐길거리 펼쳐져

서울 성북구가 지난 16일 성북천 분수마루(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성북 청년의 날 축제 : 일단 출발해, 우리가 있을게'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사회활동 기회가 줄어들었던 성북 청년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 문제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축제는 청년의 미래를 향한 여행의 출발을 의미하는 기차 모형과 함께 청년과 내빈의 축하 속에 시작됐다. 무대에서는 고립청년 밴드를 비롯해 관내 4개 대학의 밴드·댄스 동아리와 게스트 '기프트'가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성북의 청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대를 즐기며 청년의 날 축제를 만끽했다.

성북구는 이번 축제에서 17개의 체험, 홍보, 판매 부스를 운영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청년 K-뷰티 코너, ▲청년정책 O/X 퀴즈, ▲분리배출 게임, ▲심폐소생술 체험 등을 운영했다. 홍보 부스에서는 성북구 청년 공간, 청년정책, 청년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판매 부스에서는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등 성북구 청년창업지원사업에참여한 청년 창업가들이 음료와 비즈공예 물품 등을 판매했다.

축제의 슬로건 "일단 출발해, 우리가 있을게"는 미래라는 불확실 앞에서 나의 진로, 자아, 취향을 찾아 떠나기를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축제는 "성북청년축제기획단"을 통해 기획된 것으로, 성북구 소재 대학, 성북 청년정책 네트워크, 성북문화재단, 성북구 청년 공간, 청년단체, 청년지원 기관 등이 모여 기획단을 구성하고 축제 슬로건과 부스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오늘 축제는 성북의 다양한 청년이 모인 성북청년축제기획단을 통해 기획됐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청년이 직접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모두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 미래를 향한 성북 청년의 출발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강원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2일부터 한 달간 개최 손님맞이 이상무

전시관 및 체험존, 솔방울전망대와 엑스포정원, 힐링광장, 소나무숲 등 운영 준비 완료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9월 22일부터 31일간 개최하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전시관 등의 회장조성을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손님맞이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주행사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으로 주차장을 포함해서 217,893m²의 면적에서 진행되며, 부행사장은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이다.

전시관은 산림의 생태·환경, 역사, 문화, 휴양, 산업을 각각의 테마로 미디어아트 영상과 VR·AR체험, 각종 전시 및 체험 등으로 5개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먼저, 푸른지구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유일한 해답인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담은 환상적인 대형 실감영상이 폭 30M, 길이 40M의 거대한 공간 안에서 벽면과 바닥면 4면에 펼쳐질 예정이다.

산림평화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 과정과 산림녹화 성공기록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평화와 공존의 숲 DMZ에 대한 이야기들을 VR체험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화유산관에서는 1m 가량 지름의 실제 나무를 전시해, 나무에 새겨진 나이테를 통해 산림과 함께 해온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강원도의 명승지의 절경을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과 함께 숲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휴양치유관에서는 페이퍼아트로 표현된 환상의 숲 공간에서 동화 속 인물로 분장한 연기자의 관람객 소통 퍼포먼스와 함께 캠핑체험 등을 진행하며, 숲속놀이터, 숲속도서관, 자생식물 전시 및 나눔받기 등과 강원의 숲 VR체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교류관에서는 산림분야 국제기구(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국내 기관, 95개의 기업(청정임산물, 목재가공, 임산물바이오, 스마트산림, 산림 레저,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산림 관련 산업 전반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으며, 산림엑스포 후원기업들을 소개하는 홍보존과 함께 산림 관련 퀴즈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에는 랜드마크 조형물인 솔방울전망대를 비롯하여 산불 진화 헬기 및 대형산림장비 야외전시와 정원, 잔디광장, 숲길 등을 조성했다.

먼저, 솔방울전망대는 높이 45m, 아파트 15층 규모로 완만한 경사로 휠체어로도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오르는 중간중간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26개의 포켓전망대를 설치했다. 상층부에서는 울산바위를 비롯한 설악산 주요 지점,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울러 높이 16m 지점에는 길이 42m의 원통형 슬라이드를 설치하여 스릴감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게이트 옆에는 실제 산불 진화헬기를 전시하고, 야외전시장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대형 산림장비를 전시하여 산림작업 시연과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엑스포정원에는 4개 시군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꽃들을 식재하여 산림엑스포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2천평 규모의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는 힐링광장에는, 인디언집, 트리하우스 등의 이색목조주택과 캠핑카라반과 캠핑 장비, 그네와 해먹, 비계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행사장 한쪽에는 관람객 산책을 위한 소나무 숲길을 마련했다. 숲길의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데크를 조성해 숲길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중간에는 울산바위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학술행사는 행사기간 중 총 5회 진행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한국산림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과 과학기반 산림복원'을 주제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된다.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을 포함, 해외 전문가 14개국 3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산림 보전·복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국제PEN한국본부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시대의 문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0월 5일부터 이틀간 인제 만해마을에서 문학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주관하는 심포지엄은 '국토녹화 50주년'기념 사업으로 '미래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산림공학 기술 국제심포지엄'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산림조성·육성의 미래전망 심포지엄' 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개최된다,

강원산림포럼과 산림조합중앙회, 道 산림과학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산림보호협회와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학술행사가 10월 18일부터 이틀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지속가능한 강원산림발전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은 총 43개를 마련했다.

전시관 내에서도 단순 관람이 아닌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푸른전시관 내에는 키오스크 신청을 통해 향후 실제로 강원도 산에 나무를 심고 휴대폰으로 인증받는 '산림지키기 프로젝트', 산림평화관 내에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가상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드는 '평화의 숲 미디어아트', 백두대간, DMZ를 실제로 여행하는 듯한 체험을 하는 'DMZ드론라이더'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AR로 제작된 아름다운 나무의 영상을 태플릿PC로 체험하는 '스크린에 담은 숲', AR로 제작된 한국화, 서양화 등 다양한 회화작품을 태블릿PC로 감상하는 '캔버스에 담은 숲' 프로그램 등과, 휴양치유관 내에서는, 산신령과 대장금, 허준으로 분장한 배우들의 참여형 퍼포먼스 이벤트, '숲속 놀이터', '숲속 캠핑장' 체험, 그리고 강원도 내 유명 숲길 및 관광지 VR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존 내에는 숲속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해주는 '숲속사진관', 솔방울을 활용한 나만의 '솔방울리스만들기', 바다재료를 활용하여 액세서리를 만드는 '비치코밍 굿즈만들기', 드로잉 작가와 함께 나만의 머그컵을 만드는 '산림드로잉, 숲을 그리다', 폐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연주하고 만들어보는 '숲을 연주하다', 친환경 그림물감을 활용하여 염색하는 '천연염색체험', 나만의 목공예품을 만드는 '목공예품 제작' 체험을 비롯하여, 궁궐목 만들기, 임산버섯 전시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무대공연은 총 80여 회 진행될 예정이다.

스페셜데이 무대공연은 8회 진행된다. 9월 22일 개막축하공연(홍진영, 이찬원, 장민호)과 9월 23일 EATOF DAY in 강원&트롯콘서트(세부주&사이판 국제공연, 박서진, 설하윤), 9월 24일 발라드콘서트(박재정, 백아연), 9월 28일 어린이환경퍼포먼스(유상통프로젝트), 10월 1일 국군의날특별콘서트(하이키, 시그니처), 10월 7일 행복페스타(CIX, 라치카), 10월 8일 힐링페스타(백지영, 코요태), 10월 14일 낭만페스타(KCM, 박혜원) 공연이 8회 진행되며, 마술, 댄스, 연주, 노래 등 전문공연단과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72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음식관과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전시와 체험, 공연, 휴식과 함께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부행사장에는 20개의 부대행사 및 연계행사를 운영한다.

고성에서는 'DMZ평화탐방투어'와 '온라인 테마별 스탬프투어', 속초 청초호유원지 일원에서는 '빛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과 '국화전', 설악산자생식물원에서는 '숲체험', 국립등산학교에서 '클라이밍 체험과 동호인대회', 인제 용대관광단지 일원에서는 '임산물한마당축제'와 '미니정원콘테스트',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는 '목공예체험 및 경연대회'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4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계행사도 즐길 수 있다. 고성의 '설악산 울산바위 말굽폭포탐방'과 '백두대간평화트레킹대회', 속초의 '설악문화제',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 인제의 '가을꽃축제', 양양의 '연어·송이축제' 등의 행사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아울러,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참여하는 외빈은 필리핀 세부주지사, 몽골 튜브도지사 등 16개 해외지방정부 및 기관과 스페인·슬로베니아·모로코 대사 등 21개의 주한대사관, 그리고 16개의 학술행사 참여 국가 등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논할 예정이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위생과 방역, 교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행사기간인 9월 22일부 10월 22일까지는 폭염에 대한 우려는 적지만, 가을철 태풍과 산불 등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강도별로 준비한 안전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며, 경찰과 소방인력, 방역반과 식음료 점검반, 응급구조반 등이 상주하고 자체소방대를 편성하여 순찰과 수시 점검(식중독진단 1일 7건 검사), 신속한 대응까지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5개의 화장실에서 18개의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 23개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관리점검인력 10명을 편성해 수시로 위생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관람객 교통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5개 노선과 주차장 4,520면(당초 계획 2,768면 대비 1,734면 추가 확보)을 운영하고, 교통통제 인력 60명을 배치한다.

자원봉사자는 515명(일반 478, 통역 37)명을 모집했고, 지난 9월 6일 발대식을 거쳤으며, 행사기간 전 운영교육을 거쳐 행사기간 일일 154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엑스포 개막일인 22일에는 개장식과 개막식, 그리고 개막축하공연이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개장식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주행사장 메인게이트에서 군악대의 공연과 커팅식, 입장객 경품 이벤트 등으로 진행하며, 개막식은 오후 2시부터 솔방울전망대 무대에서 해외지방정부와 주한대사관 초청 외빈들과 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산림청장, 개최시군 시장군수 등 내빈들을 모시고 진행한다.

개막식에는 필리핀 세부 초청공연단의 공연,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식전공연과 환영 세리머니, 도립예술단과 합창단, 스트릿댄서들이 함께하는 "숲으로 가자" 주제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초대형 산림항공기 산불진화 시연 퍼포먼스가 함께 펼쳐져 산림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엑스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어서 홍진영, 장민호, 이찬원 등이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산림축제로서의 신나는 분위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며, 산림의 가치가 점점 커져가는 만큼 산림엑스포가 산림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인류와 산림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적인 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가득한 산림엑스포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행사를 함께 즐겨주시고, 강원도의 깨끗한 산과 바다, 계곡 등 천혜의 자연경관도 함께 둘러보시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아산시 '호수에 색을 더하다'… 100인 100색 전 개최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신정호 국제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 전

아산시는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신정호 국제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 전(이하 100인 100색 전)'이 9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신정호 카페 갤러리 26개소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100인 100색 전은 '호수에 색을 더하다'라는 부제로 국내·외 80명의 초대작가(원로작가와 신진작가)와 공모로 선정된 지역·청년 작가 27명의 작품 312점이 전시돼 시민들을 맞이한다.

시는 100인 100색 전을 통해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의 국제 아트페스티벌 브랜드 구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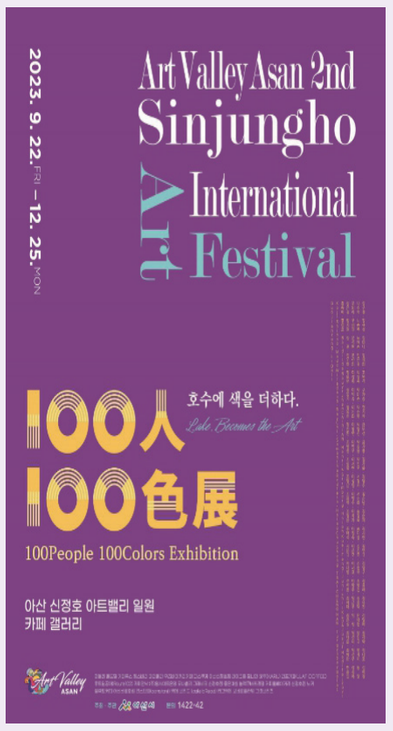
특히 2024년 국제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해 교류 도시인 중국 동관시를 비롯해 영국, 독일, 덴마크,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의 작가들도 초대한다.

또 시민 참여적 아트 페스티벌을 위한 전시 감상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시각예술의 새로운 감상법도 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신정호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카페 갤러리에서 100인 100색의 다채로운 색채가 펼쳐지며, 호수에 색을 더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100인 100색 전은 '미술관 가는 길(박효원 대표)'가 전시 대행 운영을 맡았으며, 오프닝 행사는 9월 22일 16시 신정호 카페 '그린브리즈'에서 열린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뛰어난 건축·디자인 작품 한자리에

도, 다음달 12~15일 '2023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 개최

충남도는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도청 문예회관 일원에서 도내 최대 건축·디자인 문화행사 '2023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뿌리 근(根)'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건축과 디자인을 접하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볼거리는 △건축 및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및 만들기 대회 수상작 전시 △국제 디자이너 초대작품 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시설물 전시 △옥외 광고 우수작품 전시 △충남 건축학과 학생 연합설계 작품 전시 △무형문화재 작품전 등이다.

즐길거리로는 △전통 건축문화 체험 △생활 소품 만들기(DIY) △에어바운스 등을 마련하며, 플리마켓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 건축학과생들을 위한 대형 설계업체 취업 상담, 유명 건축가 강연, 건축 영화 상영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문화제에선 충남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지역 건축사, 고등학교 건축동아리, 건축 전공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캔스트럭션' 대회도 개최한다.

이 대회는 식품 캔을 쌓아 창의적인 조형물을 만들고 대회 이후에는 활용한 모든 식품 캔을 지역 푸드 뱅크에 기부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를 통해 도내 건축인 간 화합을 도모하고 전체적인 건축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도가 주최하고, 충남건축사회·충남공공디자인협회·충남도시건축연구원·도교육청이 후원한다.

최정근/기자

원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 위해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신청대수 2019년 13대 → 2023년 75대 급증

원주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택시 1대당 최대 12만 6천 원(70% 지원)이며, 시는 지난 8월부터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모집 결과, 일반택시 57대와 개인택시 18대 등 총 75대가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에 신청한 13대와 비교하면 5.7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원주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간협소에 따른 움직임 불편, 빛 번짐 등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신청 대수가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국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을 향한 범죄, 취객 위협과 같은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 원주시에도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모집규모(155대)보다 신청 대수가 적어 추가모집 안내 등 적극적으로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기원

전 직원 입장권 구매 및 대대적인 지원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오는 9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개최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직원 및 관내 유관기관, 협회, 민간단체인 한국임업후계자 태백시지부, 농업단체 등의 다수 인원이 대거 참석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 엑스포 기간 중 9월 26일은 '태백시의 날'로 진행될 예정으로 태백시 주요 관광지, 한국안전체험관,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홍보를 위한 부스가 운영되어 관내 산림 자원을 알리고 홍보하는 자리로 500여 명의 직원 및 유관기관, 협회, 민간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산림 엑스포 개최의 전 직원 참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풍부한 산림자원의 재발견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대표 고원도시 브랜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는 태백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채널, 관내 전광판 활용,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 홍보물 비치, 마을 축제 홍보활동, 국립공원공단 태백산사무소 주요 탐방로, 시외버스터미널 내 홍보영상 상영을 비롯하여, 700여 매의 직원 입장권 구매 등 활발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유상근/기자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접경지역 개발'유공 대통령상 수상

지역특성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로 성장 동력 창출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는 18일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행정안전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 인천시,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 등이 참여한 'DMZ 자유·평화 대장정' 첫 출정식에서 접경지역 개발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는 자연생태, 관광·문화·향토자원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접경지역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왔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방, 산림 등 지역성장을 저해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군사보호구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등을 통해 접경지역 개발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접경지역 개발 유공 대통령상 수상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 시군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접경지역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이 더욱 개선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중앙부처와 3개 시도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의 아픔을 공감하며,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장정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8일 고성에서 첫 출정식을 시작하여 11월 19일까지 총 420명이 6회로 나뉘어 각각 6박 7일간 진행된다.

이등원/기자

국토교통부, 제주도-가파도 택배, 드론으로 받으세요

9월 21일 첫 드론택배 서비스 … 정부-지자체 협력하여 세계 최초 LTE 활용 드론식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택배가 들어가지 않는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국토부는 가파도를 '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섬 지역 드론택배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9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이내)하여,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 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드론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부산에서 세계를 보다…
'부산 세계 도시브랜드 포럼'개최

박형준 시장, "따뜻한 시민 행복공동체를 기반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및 아시아 최고 행복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혀

부산시가 세계 각국의 도시브랜드 선도 도시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시브랜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부산시는 내일(18일) 오후 1시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2023 부산 세계 도시브랜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선포한 부산시가 세계 도시브랜드 트렌드의 선도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선도 도시 간 상호 연대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외 유명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와 도시브랜딩 이슈를 이끄는 각국 관계자들이 부산을 직접 찾아 눈길을 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와 70여 년간 전 세계 도시의 삶의 질을 분석한 자문 기업 머서 등 국제적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고베시(일본)와 포르투시(포르투), 싱가포르(싱가포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관(官) 주도의 도시브랜딩뿐만 아니라, 민(民)이 중심이 되어 개발된 도시브랜드 사례도 공유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민관이 도시브랜딩 전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포럼 1부에서는 '도시브랜딩과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개회식과 기조연설, 비전 발표를 통해 주요 연사들의 통찰력 있는 경험을 공유한다.

기조연설에서는 세계적 디자인 전문 서비스 기업인 'iF'의 우베 크레머링 회장이 '메가 트렌드에 따른 디자인 트렌드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에 선정(2008)된 고베시의 오하라 카즈노리 부시장이 '고베의 도시브랜딩 정책과 비 고베(BE KOBE)에 담긴 마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세계적 자문 기업 머서의 슬래진 파라카틸 글로벌 조사총괄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주제로 부산의 강점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도 직접 연사로 나서 '아시아 최고 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을 위한 품격있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확립된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한층 높아진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잠재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글로벌 도시브랜드 트렌드 및 마케팅'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도시브랜딩 전문가들이 함께 전문가 세션, 종합토론 등을 진행한다.

전문가 세션에는 전통 문양(아줄레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아이콘을 개발해 성공적인 도시브랜딩을 이끈 포르투시의 이사벨 모레이라 다 실바 소통홍보 책임과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딩으로 도시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 싱가포르의 유니스 탄 TSLA 대표가 도시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경험을 발표한다.

부산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을 이끈 황부영 총괄 디렉터도 발표자로 참여해 부산의 도시브랜드 추진 경과와 의미,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브랜딩 방향 등에 대한 제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황부영 총괄 디렉터를 좌장으로, 2부 발표자들과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머서의 슬래진 파라카틸 글로벌 조사총괄이 토론자로 참여해 도시브랜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날 포럼은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시브랜드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도시는 비즈니스와 투자유치, 관광산업, 인재유치 등에서 엄청난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도 따뜻한 시민 행복공동체를 기반으로 물류 허브도시, 금융 혁신도시, 디지털 신산업 도시, 문화매력도시, 글로벌 관광 도시라는 5대 성장엔진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 및 아시아 최고의 행복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부산에서 세계의 도시브랜딩을 보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희태/기자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메타버스 플랫폼 만든다

독도 VR 실감형 메타버스 환경 도입으로 독도를 가상 공간에 구현

경북교육청은 독도 교육용 VR(가상현실) 실감형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독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독도를 가상의 공간에 구현하고, 사이버독도학교 콘텐츠를 기반으로 독도 학습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으로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에게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가상 체험 공간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독도 특화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플랫폼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드론을 활용한 독도 실사 이미지와 360도 영상, 4K 영상 등을 메타버스에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독도에 가는 법 △독도 내 생태계 △독도 수비대 △독도의 역사 △독도의 지리적 특성 등 10여 개의 교육용 콘텐츠를 독도 메타버스에 적용한다.

그리고 학습 중 동시 토론이 가능하도록 아바타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 기능과 단위 학급별 다양한 교육 기능과 실시간 음성 채팅 기능 등 추가 콘텐츠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VR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멀미를 줄이기 위한 저감 기술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사이버독도학교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전 세계에 바르게 알리는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투명하고 합리적인 청렴 정책 추진에 박차!

교육감 주재 2023년도 교육행정분야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경북교육청은 18일 본청 홍익관에서 교육감 주재로 과장 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교육행정분야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예산 집행, 공사 계약, 학교 시설 분야의 청렴정책 과제들을 집중 점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예산 집행 분야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예산 길라잡이 발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개설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계약 분야는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에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TF팀 운영 △특정업체 연속 계약 금지 세부기준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등 계약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시설 분야는 체계적인 학교 시설 투자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팀을 운영해 전국 최초로'학교시설 수선주기 기준'을 고시(2023.7.12.)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2024년도 본예산 사업부터 적용해 지역과 학교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시설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분야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청렴 정책 추진으로 학교 업무 경감은 물론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

변호사 51명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부산지역 교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돕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 기관 조사 대응 ▲악성 민원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등을 통해 피해 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촉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변호인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변호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법률지원 비용을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지원과 치료 회복에 힘쓰고 있다.

김희태/기자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지역사회 기부로 나눔 실천

강북교육지원청, 나눔 실천 프로그램 운영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지난 16일 강북지역 중학교 26개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추(秋)떡추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북 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교육복지대상자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중구 유곡 119안전센터와 학성지구대를 찾아 직접 만든 떡케이크와 한과를 전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운중 학생은 "요리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부활동까지 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매곡중 학생은 "내가 만든 케이크를 받고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며 작은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강북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인천시교육청, 학생 사회·정서 역량 강화 리더십 체험 캠프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사회·정서 역량 강화 리더십 체험 캠프를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했다.

행사는 '진로 역량으로서의 사회·정서 학습(SEL)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인교육대학교와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협력으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급회장 1,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 내용은 인성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정서 관리 및 사회성 향상 체험 프로그램과 인천시교육청에서 개발해 보급하는 학생자치 활동용 사회·정서 학습(SEL) 프로그램 활용 방법 안내 등이다.

캠프에 참가한 만수고등학교 학생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학교의 학급회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할 활동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오늘 만난 친구들과 학급자치 활동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사회·정서학습(SEL)은 경청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와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등을 잘 할 수 있게 돕는 교육정책"이라며 "인천의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수원시 팔달구, 추석맞이 도시공원 일제점검

도시공원 47개소 시설물 집중점검 및 환경정비

수원시 팔달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 일제점검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귀성객 및 시민들의 공원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원 내 시설물(화장실 및 야외운동기구 등) 점검 및 환경정비(예초)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도시공원 47개소이며 공원 화장실 18개소와 어린이놀이공간 40개소에 대해 집중 청결관리에 들어간다.

화장실 위생소독과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 탄성포장재와 놀이용 모래를 고온스팀으로 살균 소독하고, 잦은 비 예보로 길어진 공원 내 잔디 예초작업도 실시한다. 안내판과 벤치 등 휴게공간도 자체 점검하며 보수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팔달구 공원녹지과장은 "추석 연휴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농관원 충북지원과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충청북도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육류·과일류·나물류 등)과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광주시, 광동교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 완료

광주시는 광동교(퇴촌면 광동리 578-5 국지도 88호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광동교는 올해에만 벌써 극단적 선택으로 투신한 사람이 2명이며 다리 위쪽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다리에서 물(경안천)까지의 높이가 낮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CCTV 설치를 추진했다.

이번에 설치한 장비는 지능형 CCTV 총 10대로 고정 카메라(200만 화소) 8대와 회전 카메라(400만 화소) 2대, 방송 장비 등으로 광동교 모든 방면의 감시가 가능하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을 통해 광동교 위에서 행위자의 이상행동 감지 시 안내방송은 물론, 소방·경찰에 즉각적 신고가 가능한 지능형 상황 관제시스템으로 앞으로 이 구역에서의 사고 발생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CCTV 설치 및 상황 관제시스템을 통해 광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는 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남도, 시외버스 증차 등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도민·귀성객 교통안전과 교통편의에 중점…현장 중심의 교통행정 추진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도민과 귀성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폭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 전기 누전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여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운수업체, 운수조합과 협업을 통해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행 준수, 승객 응대, 사고 시 조치사항 등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연휴 동안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빈틈없는 수습.복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외버스 12개 업체에 버스 증회, 우회운행 등 개선명령을 내렸다. 연휴 동안 도내 57개 노선, 197회를 증회 운행하고, 남해고속도로(부산~진주간), 중부고속도로(내서~김천간) 등 상습정체구간 94개 노선은 우회 운행토록 조치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또한, 연휴기간에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재현/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한 시간 동안 14건 적발

용인동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위해 처인구 역북동 일대 단속 활동 펼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14일 명지대 소방서입구 삼거리 일대에서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0대 차량,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함께한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이 진행된 처인구 역북동 일대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 단속원이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미인증 등화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고, 처인구 환경위생과는 개조된 소음기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 LED 조명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10건, 불법 안개등을 설치한 불법 개조 사례 4건을 적발했다.

구는 불법 LED 조명을 장착한 이륜차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일부 차량 개조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 홍보와 계도를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2023 Uljin
제33회 The 33th Gyeongbuk Sports for All Festival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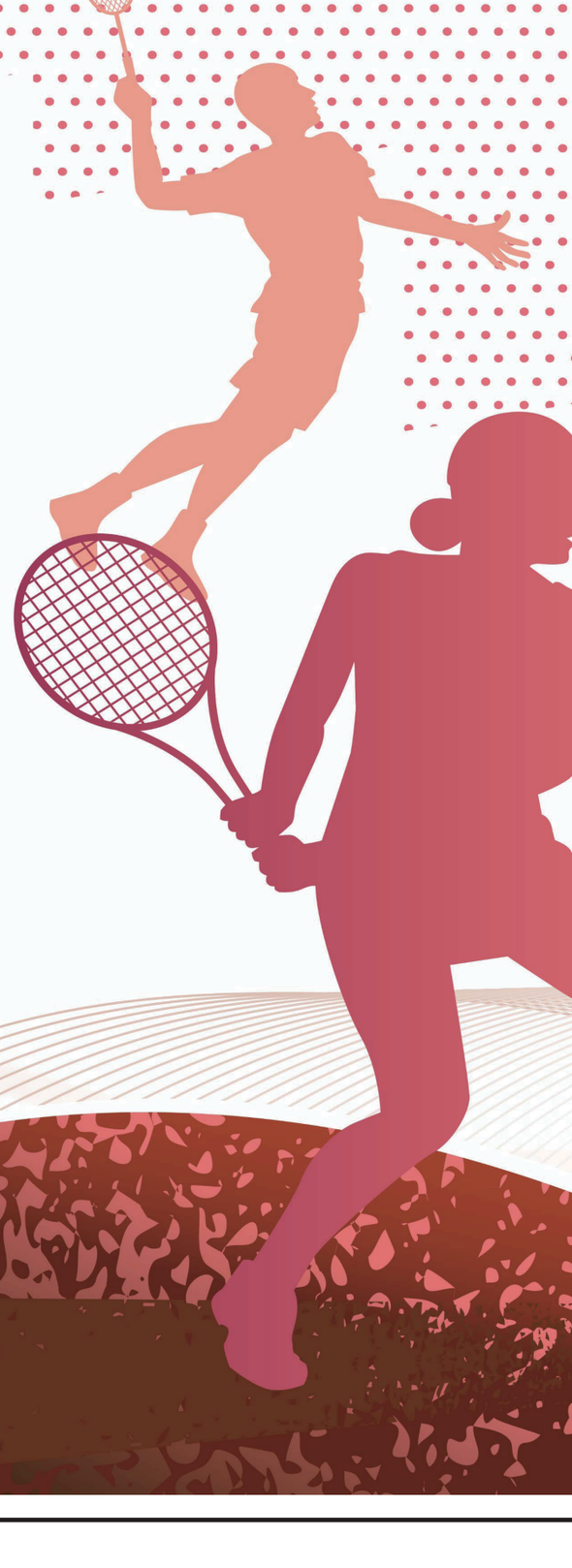
뛰어라 희망울진 날아라 경북세상

제 3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The 33th Gyeongbuk Sports for All Festival

2023.9.22.(금) - 9.24.(일) 3일간

울진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개 회 식 2023.9.22.(금) 17시 / 울진종합운동장

축하공연 [식전] 김용임 / [식후] 박지현 | 양지은

※ 개회식 참가자 전원 선물증정 및 사은품 천만원 상당 추첨

[주최] 경상북도·경상북도체육회 [주관] 울진군·울진군체육회
[후원] 대한체육회